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김지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Nursing Students

Ji Hyun Kim

Daejeon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D시에 거주하는 간호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연령은 21.79세. 대상자의 68.1%가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고, 여행기간은 1개월 미만이 80.6%였다. 실습기간 중 외국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간호대학생들은 66.0%였고 대상자의 90.3%가 다문화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은 4점 만점에 2.90점이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3.01점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임상실습 기간과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 외국 방문 경험이었으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이었다. 이에 다문화 시대에 대비하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주제어 : 문화적 민감성, 고정관념, 결혼이주여성, 간호대학생,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14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to June 2013. The mean age of subjects was 21.8 years old. 68.1% of subjects had have experiences to travel abroad. Many subjects(90.3%) report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was needed. 66.0% of subjects met foreigners at clinical place among practice period. The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were middle range. It suggested that to prepare for the coming era of globalization, and to increase the nursing students' cultural sensitivity, a transcultural nursing curriculum needs to develop for appropriate and effective services in cross-cultural situat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Key Words: cultural sensitivity, stereotype, immigrant women, nursing student,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2012-0001927)

Received 10 March 2014, Revised 25 June 2014

Accepted 20 July 2014

Author: Ji hyun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E mail :jheyelin@dju.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중에서 국제 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8%에 이르며, 2013년 7월 기준 결혼이민자수도 1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결혼이민자의 국적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2000년도 초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여성의 유입이 점차 줄어들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몽골, 러시아 등의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유입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1].

국제 결혼 급증에 따른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경향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교육, 사회복지 및 건강관련 분야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되어지고 있다[2].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다문화가정,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보건의료 인격의 준비 및 서비스 개발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3].

보건의료영역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은 대상자들의 생활습관 및 건강관리 요구, 건강 신념이나 태도, 건강행위의 다양성을 의미한다[4].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문화적 역량을 갖춘 보건의료인력이 필요하다[5,6]. 특히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화된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가치, 태도, 신념, 실천 등에 대해 인지하는 문화적 민감성이 개발되어야 한다[5-7].

문화적 민감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 낙인, 문화적 기반 등이 없이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서적 측면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6,7]. 또한 문화적 민감성은 서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활동적, 문화적 요인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8].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보건의료인은 대상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 더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8]. 이러한 보건의료인의 문화적 민감성의 증진은 대상자들의 건강증진 및 질병발견, 치료,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8].

한편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적인 태도의 근거가 된다[9]. 고정관념은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대상이 되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정보 처리를 편파적으로 만들고 편파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10].

문화적 민감성과 고정관념은 다양한 문화를 인지하고 수용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이다[11]. 최근 문헌들에서 간호교육자 및 간호대학생, 임상 간호사들의 타문화와 대한 지식 결핍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문화적 민감성 획득을 위한 교육과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2].

향후 다문화 사회의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를 제공하게 될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은 그들이 갖추어야 하는 주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11,12].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과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 대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결여에 관한 문제는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및 복지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민감성 조사 연구[13]와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민감성의 영향 요인을 파악한 연구[14]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함으로써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간호교육과정 및 실무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악한다.
- 셋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정도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5월 10일에서 부터 2013년 6월 5일까지였다.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한 4년 제 종합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 학생을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전공책임 교수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 등을 설명한 뒤, 협조를 구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 시간은 20-30분 정도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152부였으며, 그중 기록이 누락된 8부의 설문을 제외한 144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하였다.

표본크기는 G*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집단의 변수 내 평균비교를 실시하는 연구이며, 양측검정, 중간수준의 효과크기 0.35, 유의수준 .05의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필요한 최소 표본크기는 107명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집단은 144명으로 대상자의 숫자 크기는 충족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민감성은 Choi, Kim & Im[15]이 개발한 문화적 민감성 척도를 Oh[14]가 수정 보완하여 간호대 학생들에게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은 문화통합태도 7문항, 문화적 지식습득 9문항, 문화적 기회균등 9문항, 문화적 독특성 인정 5문항, 자국어 사용배려 5문항 등 5개 하위 영역의 3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며 '매우 아니다' 1점, '아니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범위는 35점에서 140점이며 선행연구[14]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으며, 본 연

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3.2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도구는 Corrigan & Schmidt[16]가 상담심리학에서 대인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상담자간 평가척도(CRF: Counselor Rating Scale)를 Lee의 연구[17]에서 고등학생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묻는 질문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도구는 12개의 감정표현 형용사를 이용한 인종에 대한 감정을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가능한 점수는 12-60점이다.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였고,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의 연구[2]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4$ 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분석하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최소값, 최대값,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넷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 관련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세

이하 24.3%, 21세에서 25세 사이가 66.7%, 26세 이상이 9.0%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21.8세로 나타났다. 성별은 95.8%가 여성이었으며, 임상 실습 경험은 2회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80.6%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68.1%가 외국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체류기간은 1주일 미만이 43.9%로 가장 많았으며, 1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는 대상자도 1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방문의 목적은 여행이 70.4%로 가장 많았다. 현장 실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6.0%였다. 대상자의 90.3%는 대학 교육 과정 중 다문화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4)

Characteristics	Category	Number (%)	M±SD
Age(years)	≤20 years old	35(24.3)	21.8 ±2.75
	21-25 year old	96(66.7)	
	≥26 year	13(9.0)	
sex	male	6(4.2)	
	female	138(95.8)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2nd semester	116(80.6)	
	4th semester	28(19.4)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26(18.1)	
	living with relatives	38(26.3)	
	University Dormitory	27(18.8)	
	living alone	53(36.8)	
religion	christian	47(32.7)	
	catholic	14(9.7)	
	buddhism	13(9.0)	
	no religion	70(48.6)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yes	130(90.3)	
	no	14(9.7)	
experience of going abroad	yes	98(68.1)	
	no	46(31.9)	
duration of going abroad** n=98	less than 1 week	43(43.9)	
	1 week-under 1 month	36(36.7)	
	more than 1 month	19(19.4)	
reason of going abroad** n=98	to travel	69(70.4)	
	to help others	5(5.1)	
	for language training	14(14.3)	
	etc.	10(10.2)	
foreign friends or relatives	yes	38(26.5)	
	no	106(73.5)	
contacting foreigners in clinical practice	yes	95(66.0)	
	no	49(34.0)	

**Only for subjects who had experience to visit foreign countries

3.2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Table 2>와 같다.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은 140점 만점에 평균 101.62점 이었고, 범위는 74점에서 131점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4점 만점에 문화적 독특성 인정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적 기회 균등 3.00점, 문화적 지식 습득 2.84점, 문화 통합 태도 2.80점, 자국어어 사용 배려 2.7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60점 만점에 평균 36.17점이었으며, 범위는 12점에서 56점으로 나타났다.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은 <Table 3>과 같다.

문화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임상 실습 경험 횟수와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 외국 방문 경험 유무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경험 횟수는 2학기동안 임상실습을 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이 102.56점으로 4학기동안 실습을 한 학생들보다 더 높았다($t=2.46, p=.01$).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이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 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2.34, p=.02$). 또한 외국 방문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들이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문화적 감성이 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08, p=.00$).

대상자의 특성 중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고정관념은 36.55점으로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32.7점 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다문화 교육 요구가 있는 경우가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2.11, p=.03$).

3.4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Table 2>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to multi-culture among nursing students

(N=144)

category		min	max	M ± SD	Average Rating(m±SD)
stereotype to multi-culture		12	56	36.17±6.53	3.01±0.54
cultural sensitivity	culture integration attitude	10	28	19.62±2.96	2.80±0.42
	acquisition of cultural knowledge	16	36	25.61±3.58	2.84±0.39
	equality of cultural opportunity	18	36	27.04±2.99	3.00±0.33
	approval of cultural uniqueness	11	20	15.84±1.78	3.16±0.35
	consideration for mother language	9	20	13.52±2.10	2.70±0.42
cultural sensitivity total		74	131	101.62±9.35	2.90±0.26

<Table 3>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by culture-related characteristics among nursing students

(N=144)

Characteristics	Category	cultural sensitivity M(SD)	F/t/r	p	stereotype to multi-culture M(SD)	F/t/r	p
Age(years)	≤20 years old	100.14(1.63)	1.40	.25	36.77(5.25)	1.40	.25
	21-25 year old	102.53(8.36)			35.63(6.92)		
	≥26 year	99.00(14.24)			38.62(6.41)		
experience clinical practice*	2 nd semester	102.56(9.43)	2.46	.01	36.09(6.84)	-.29	.76
	4 th semester	97.79(8.05)			36.50(5.11)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99.49(9.14)	2.12	.10	36.54(6.06)	.82	.48
	living with relatives	101.09(13.19)			33.27(5.74)		
	University Dormitory	103.59(8.73)			36.26(7.10)		
	living alone	102.33(0.57)			37.33(4.04)		
religion	christian	102.15(9.82)	.37	.82	35.28(7.44)	.75	.55
	catholic	104.00(9.50)			38.14(8.76)		
	buddhism	100.23(10.51)			37.77(6.64)		
	no religion	101.09(8.93)			36.06(5.27)		
multi-cultural education need*	yes	102.22(9.14)	2.34	.02	36.55(6.36)	2.11	.03
	no	96.14(9.80)			32.71(7.33)		
experience of going abroad*	yes	103.24(9.32)	-3.08	.00	35.48(6.83)	1.87	.06
	no	98.22(8.54)			37.65(5.63)		
duration of going abroad n=98	less than 1 week	102.21(8.05)	.63	.53	35.76(7.68)	.11	.89
	1 week-under 1 month	104.63(10.88)			35.67(6.84)		
	more than 1 month	103.37(9.05)			34.89(4.72)		
reason of going abroad n=98	to travel	103.09(9.82)	.155	.92	35.3(7.32)	.85	.46
	to help others	106.00(7.77)			36.2(4.86)		
	for language training	103.27(8.28)			34.07(5.32)		
	etc	102.78(9.32)			38.4(5.98)		
foreign friends or relatives	yes	103.51(10.56)	-1.43	.15	33.61(5.10)	2.89	.06
	no	100.96(8.84)			37.09(6.59)		
contacting foreigners	yes	102.04(9.56)	.74	.45	36.52(6.75)	.87	.38
	no	100.82(8.96)			35.51(6.09)		

*p<0.5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고정관념은 문화적 민감성의 하위 영역 중 자국어 사용 배려의 영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12, p=.00), 문화통합태

도(r=.05, p=.49), 문화적 지식 습득(r=.02, p=.78), 문화적 기회균등(r=-.03, p=.65), 문화적 독특성 인정(r=-.22 p=.06.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r(p)
Cultural sensitivity	
Culture integration attitude	.05(.49)
Acquisition of cultural knowledge	.02(.78)
Equality of cultural opportunity	-.03(.65)
Approval of cultural uniqueness	-.22(.06)
Consideration of mother language	.12(.00)

4. 논의

최근 우리나라의 다양한 민족의 유입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증가 현상은 보건의료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간호사의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 강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12,13].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전문 간호 인력으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 인력의 문화적 민감성과 역량 증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은 4점 만점의 평균평점 2.90점으로 문화적 중간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도구를 사용한 Oh의 연구[14]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민감성이 2.94점인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Jones, Cason과 Bond의 연구[18]에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의 문화적 민감성이 3.15점으로 보고한 것과 Kardong-Edgren 등[19]이 간호학 교수의 문화적 민감성이 3.20점으로 보고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이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다소 낮은 정도의 점수는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을 위한 교육적 요소의 개발과 실습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간호교육의 경우 다양한 민족과 문화 특성을 가진 대상자 간호에 있어 간호사들의 문화적 민감성을 강조하고 있다[20]. 또한 간호교육 과정과 간호

실무에서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적용이 시도되어 지고 있다[20]. 그 결과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문화적 민감성이 증가하였을 뿐만아니라 임상 실무 역량 또한 강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20]. Glittenberg[21]는 현대 간호사들은 이제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 세계적인 건강 및 범문화적 간호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것의 기초는 간호학부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간호교육계는 간호대학생들에게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다양한 민족과 문화적 특성을 가진 대상자가 우리의 의료서비스 대상자가 되었다는 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간호교육계는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구성 요소와 교육 과정 개발을 시급히 이루어야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다문화관련 특성에 따른 문화적 민감성 정도는 외국방문 경험과 다문화교육의 요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외국인이나 외국환경을 접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좀 더 빨리 타문화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Yang과 Lim, Lee[22]의 연구에서도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주요 요소로 다른 문화와의 접촉 및 교류의 경험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Park, Lee, Kang과 Chae[23]의 연구에서도 미디어, 외국어 학습, 여행과 같은 간접적인 경험 또한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타문화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은 문화적 민감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을 위해 다른 문화를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미디어 활용 및 외국어 교육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문화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시 외국인과의 교류 경험이 적은 대상자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개발의 후속연구를 제언한다.

한편 간호대학생들 중 다문화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문화적 민감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의 다문화 민감성이 향상된 Hughes와 Hood[13]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는 다문화 관련

교육이 미국 간호대학생[21]과 간호사[22], 보건 복지 인력[24]의 문화적 민감성 및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켰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미래의 간호사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는 간호사이어야 하며,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적절하고 개별화 된 간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개별화된 간호 제공을 위해서는 문화적 민감성 개발이 전제되어지며, 문화적 민감성이 높은 보건 의료인은 대상자의 요구와 기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중재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7,8].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에 참여한 간호대학생의 90.3%가 다문화관련 교육의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의 66.0%가 실습 기간 동안 외국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재 간호대학생들은 체계적인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임상실습현장에서 다문화 대상자를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험들은 간호대학생들의 다문화 관련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문화와 관련된 지식 결핍과 문화적 민감성의 결여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대상자를 간호할 때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13]. 이에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하며, 임상실무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관련 임상 지침의 개발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고정관념은 60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17점으로 중간 수준 정도로 나타났다. 고정관념은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특정 집단 구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이며, 특정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친밀감 정도나 수용할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감을 의미한다[25]. 고정관념은 상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12].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들의 대상자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대상자들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들의 고정관념 수준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Kim, Kweon[3]의 연구에서 100점 만점에 32.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에 비해 대학

생들의 경우 대학 환경에서 외국 교환학생과의 만남, 봉사활동 및 실습 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접촉의 기회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실제 고정관념은 영화, 뉴스 등 간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여행, 개인적 접촉과 같은 직접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며[26], 개인적인 접촉이 증가할수록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감소하게 된다[27]. 이와같이 개인적 접촉과 교육적 프로그램 적용은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하다. Cheong 등의 연구[28]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개인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감소되고 문화적 교류도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 고정관념 및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제공 뿐만아니라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의 기회 확대 및 실습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접목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증진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비록 선행연구[11]에서 고정관념이 타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5가지 하부영역 중 '자국 언어 사용 배려의 영역'에서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도구의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 측정 도구를 변환한 도구로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민족, 문화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민족,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질문 내용을 개발하여 측정한다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문화적 민감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전회시키기 위한 범문화적 간호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교육적, 실무적 차원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과 중재전략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준다는 의의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을 일개 시에서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을 임의 추출하였기에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제한점을 가진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대다수가 여학생이었기에, 성별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 및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참여자를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2,3,4학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이에 간호학 임상 실습을 통해 다문화 가족 또는 이민자를 간호해 본 경험이 없는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민감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문화적민감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인들이 포괄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제안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의 이주민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로 환경 변화에 대한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과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을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D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1.8세였으며 성별은 95.8%가 여성이었고, 조사대상자의 68.1%가, 조사대상자의 68.1%가 외국 방문 경험이 있었으며, 현장 실습을 하면서 외국인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66.0% 이었다. 대상자의 90.3%는 대학 교육 과정 중 다문화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의 문화적 민감성은 140점 만점에 평균 101.62점 이었다. 각 하위 영역별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문화적 독특성 인정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적 기회균등 3.00점, 문화적 지식 습득 2.84점, 문화 통합 태도 2.80점, 자국 언어 사용 배려 2.7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60점 만점에 평균 36.17점으로 중간 수준의 고정관념을 보였다. 문화적 민감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는 임상 실습 경험 횟수와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 외국 방문 경험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다문화 관련 교육 요구로 나타났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research fund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in 2012.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Dynamic stastics of population (Marriage). from <http://kostat.go.kr> /Retrieved July 9, 2013.
- [2] J. O. Reimann, G. A. Talavera, M. Salmon, J. A. Nunez, R. J. Velasquez, Cultural competence among physicians treating Mexican Americans who have diabetes: A structur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Vol. 59, pp. 2195-2205.
- [3] M. J. Kim, T. I. Kim, Y. J. K, A study about cultural sensitivity and stereotype about immigrant women among general hospital nurses in Chungcheong a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Vol. 15, No. 3, pp. 1334-1344, 2014.
- [4] F. A. Maurer, C. M. Smith, *Community / public health nursing practice: health for families and populations*. 4th ed. Saunders. 2009.
- [5] M. J. Clark, *Community health nursing : A advocacy for population health*. 5th ed. New Jersey: Pearson Education. 2008.
- [6] Y. J. Kim, J. O. Lee, S. H. Cho, An explorative study of perceived cultural competency of medical social workers in kore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1, No. 3, pp. 251- 283, 2011.
- [7] K. H. Hughs, L. J. Hood, Teaching methods and an outcome tool for measuring cultural sensitiv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ranscult Nursing*, Vol. 18, No. 1, pp. 57-62, 2007.
- [8] M. K. Kim. A study on community members cultural sensitivity about immigrant wive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8, No. 1, pp. 69-86, 2010.
- [9] D. S. Kim, D. H. Kim, T. Y. Jung, Cogni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for six foreigner groups.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 Psychology, Vol. 25, No. 1, pp. 1-23, 2011.
- [10] S. J. Lee, Y. M. Song, M. S. Kim, Types of a stereotype and a prejudi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e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centered on the process of recogni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29, pp. 1-27, 2011.
- [11] C. Foronda, A concept analysis of cultural sensitivity.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9, pp. 207-126, 2008
- [12] K. H. Hughes, I. J. Hood, Teaching methods and an outcome tool for measuring cultural sensitivity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8, pp. 57 -62, 2007.
- [13] W. O. Oh, W. S. Jung, H. G. Kang, E. H. Kim, M. H. Suk, Cultural knowledge, empathy and cultural sensi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and welf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Vol. 23, No. 2, pp. 192-199, 2010.
- [14] W. O. Oh,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 12, No. 4, pp. 222- 229. 2011.
- [15] S. H. Choi, S. H Kim., M. H. Lim, Developing cultural sensitivity scale. *Multicultural Family Center of Pyeontaek University*. 2008.
- [16] J. D. Corrigan, I. D. Schmid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vision in the counselor rating form.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4, pp. 129-161, 1983.
- [17] O. S. Lee, A comparative study on cultural sensitivity of preliminary teacher between Korea and China. *Comparative Education Study*, Vol. 19, No. 1, pp. 193-217, 2008.
- [18] M. E. Jones, C. L Cason, M. L, Bond, Cultural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of a health workforc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5, pp. 283-290, 2004.
- [19] S. Kardong-Edgren, M. L. Bond, S. Schlosser, C. Cason, M. E. Jones, R. Warr, et al, Cultural attitudes, knowledge, and skills of nursing faculty toward patients from four diverse cultures.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21, pp. 175- 182, 2005.
- [20] C. A. Lee, A. Christine, M. A. Anderson, P. Hill, 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nurses: a pilot atudy.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7, No. 3, pp. 137-41, 2006.
- [21] J. Glittenberg, A transdisciplinary, transcultural model for health care. *Journal of Transcultural Nursing*, Vol 15, pp. 6-10, 2004.
- [22] S. Y. Yang, H. N. Lim, J. H. Lee, The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empath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No. 2, pp. 183-193, 2013.
- [23] Y. H. Park, T. H. Lee, K. H. Kang, D. H. Cha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cultural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 Academic Society*, Vol. 18, No. 1, pp. 76-86, 2012.
- [24] A. Salman, D. McCabe, T. Easter, B. Callahan, Cultural competence among staff nurses who participated in a family-centered geriatric care program. *Journal for Nurses in Staff Development*, Vol. 23, No. 3, pp. 103-113, 2007.
- [25] H. Kim, The effect of values on prejudice toward minority groups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1, No. 4, pp. 91-104, 2007.
- [26] D. E. Mastro, L. R. Tropp, The effects of interracial contact, attitudes, and stereotypical portrayals on evaluations of black television sitcom character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21, No. 2, pp. 119-129, 2004.
- [27] R. M. Stein, S. S. Post, A. L. Rinden, Reconciling context and contact effects on racial attitudes.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3, No. 2, pp. 285-303, 2000.
- [28] Y. G. Cheong, H. J. Song, T. I. Yoon, H. Shim, The Effect of media stereotyping of immigrants on attitudes multiculturalism in korea.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Vol. 55, No. 9, pp. 405-444, 2011.

김 지 현(Kim, Ji Hyun)



- 200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5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 성인 간호
- E-Mail : jheyelin@dju.ac.kr